

Deep

Comprehension

Beyond the Brain

서문

저는 십 수년 전부터 독해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쉬운 글을 잘 읽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글을 능숙하게 읽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독해력 문제로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위 SKY라 일컫는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여 절망하는 사람이 있었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기초적인 독서가 어려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큰 장애물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왜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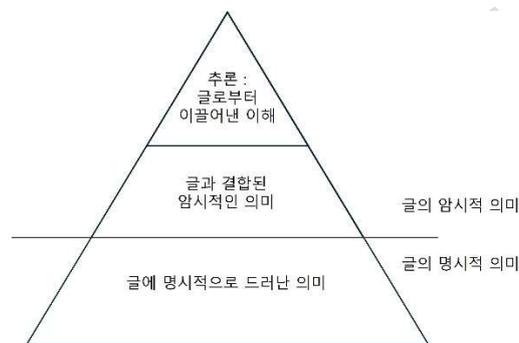
왜 책을 읽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잘 읽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파편적이었습니다. 웹 또는 유튜브 등에는 문해력, 독해력에 관련된 정보를 많은 정보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문가지만 전문직 또는 선망 직업을 가진 이의 주장', '학업적으로 좋은 성취를 거둔 이의 개인적인 경험', '다른 학문 영역에서 명망이 높은 이의 개인적 견해', '어린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방법', '문해력 관련 연구 중 일부를 참고한 방법론' 등등. 이러한 정보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 도움이 될 지 아닐지를 현명하게 분별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치 주차장에 차가 많으면 맛집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같이 '진리인듯함'을 내세우며 자신의 말을 믿도록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끕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어떤 면에서는 유용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함부로 적용할 수 없는 불완전한 지식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독해라는 복잡 다양한 정신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누군가가 꼭 짚어줄 수는 없습니다. 독해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독서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과 독해 교육 방법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 다양한 독자, 다양한 각각의 상황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학적인 연구를 학계로부터 꺼내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자신의 독해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무엇을 통해 독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읽기에 관한 세계적인 학자인 Charles A. Perfetti는 Joseph Z. Stafura와 함께 쓴 논문 '추론 없이 글의 암시적 의미 이해하기 Comprehending implicit meanings in text without making inferences'에서 아래와 같은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표는 언어 그대로의 명시적 의미와 암시적 의미를 구분하였는데요, 글에 적힌 그대로가 곧 명시적 의미이고, 암시적 의미는 글을 읽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헤아려 아는 뜻입니다. 글을 읽으면 먼저 명시적 의미를 먼저 접하고, 다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큼 암시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글의 암시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 특히 삼각형의 가장 상단에 해당하는 '추론 : 글로부터 이끌어낸 이해'를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물론 글의 명시적 의미를 아는 것도 글의 암시적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 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명시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단어의 의미를 알고,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것'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글을 깊이 이해하여 암시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목차

1장. 책 고르기에서 시작하자

2장.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읽는 것

3장. 이해를 이해하자.

4장. 추론

5. 다양한 추론 상황

6. 응집성

7. 화제와 중심생각

8. 읽기 점검

6장.

응집성

책을 잘 읽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을 읽고는 있는데, 그냥 눈만 지나온 것 같아요’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내용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읽을 때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은 여러 문장의 합입니다. 각 문장에는 각각의 생각을 담고 있는데 만약 이 생각들이 서로무관한 것이라면 너무 많거나 다양한 내용들이 독자의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부하가 걸린 마음은 마치 산사태나 홍수가 일어난 걸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듯 났을 놓고 ‘눈만 지나가는’ 글읽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중하여 매 문장을 생각하며 읽으면 어떨까요? 만약 생각들이 서로 연합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올 때 마다 이전의 생각을 밀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무한히 큰 방이 아니라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앞에서 리터러시 연구자들이 이해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소개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을 위해 그때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

다.

이해란,

- 사실을 연결하는 것, 새로 획득한 정보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연관시키는 것, 지식의 조각을 통합적이고 **응집성있는 전체로 엮는 것**
- 생각, 아이디어 및 정보를 연관짓거나 연결하여 **일관된 전체를 형성하는 것**

위의 설명에 의하면 ‘응집성있는 전체로 엮는’다면, 또는 ‘일관된 전체를 형성’한다면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글을 읽고 이해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서로 연결하고 전체적으로 잘 정리하면서 읽는다면 내용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은 전체가 서로 무관한 내용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문장 하나 하나를 따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글로 '응집성있게 전체로 엮는 것'이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제 스코틀랜드의 클라이드뱅크에서 오랫동안 연기된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장기 파업 이후에도 이곳에는 씩씩함이 남아 있지만, 이번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고위 관리들과 합류하여 피나포레호가 물에 빠지자 환호했습니다.

위 글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석한 기념식과 주변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1~6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여왕은 왜 기념식에 참석했나?
2. 기념식은 어떤 기념식일까?
3. 기념식은 왜 연기되었는가?
4. 어떤 사업장의 장기 파업인가?
5. 왜 씩씩한가? 누가 씩씩한가?
6. 노동자들과 고위 관리들은 피나포레호가 물에 빠지자 왜 환호했나?

그렇지만 만약 글을 읽으면서 1~6을 궁금해하고 알기 위해 노력했다면 독자의 마음속에는 글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표는 글을 읽으면서 위 1~6을 파악해가는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각 질문을 파악하는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1. 여왕은 왜 기념식에 참석했나? 2. 기념식은 어떤 기념식일까? 3. 기념식은 왜 연기되었는가? 4. 어떤 사업장의 장기 파업인가? 5. 왜 씩씩한가? 누가 씩씩한가? 6. 노동자들과 고위 관리들은 피나포레호가 물에 빠지자 왜 환호했나?
	글을 읽을 때 독자의 생각

<p>엘리자베스 여왕은 어제 스코틀랜드의 클라이드뱅크에서 오랫동안 연기된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장기 파업 이후에도 이곳에는 쓸쓸함이 남아 있지만, 이번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고위 관리들과 합류하여 피나포레호가 물에 빠지자 환호했습니다.</p>	<p>1. 정확히 모르지만 국가적 행사였겠지 2. 모름, 3. 모름 4. 모름 5. 파업하면 보통 고용자-피고용자의 대립/갈등이 있어서 4. 이곳은 조선소였겠군. 그렇다면 조선소 파업이었을꺼야 6. '조선소', '물에 빠지다' → 진수식일꺼야 2. 기념식은 진수식이었다. 3. 장기 파업으로 인해 배의 완성이 늦어졌고 그래서 진수식이 연기되었겠군 1. 피나포레호는 특별한 배였을꺼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꺼야 (오페라 H.M.S. Pinafore 속에서 피나포레호는 영국 해군 군함)</p> <p>* 파업으로 인해 쓸쓸했던 분위기는 진수식을 계기로 풀어졌을지도 몰라. 더구나 여왕도 참석했잖아. 영국인들은 여왕을 많이 좋아하던데. 여왕이 참석하는 진수식이니까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오래 이어졌다면 의견 대립뿐만 아니라 감정의 골도 꽤 깊었을꺼야. 하지만 결국 파업은 끝났고, 피나포레호도 완성되어 기념식을 할 수 있었어. 다 만들어진 배와 그것을 기념하는 여왕의 모습을 보고 참석한 노동자와 관리들은 마치 앙금을 씻어내듯 기뻐했을꺼야.</p>
--	---

위 표에서 '글을 읽을 때 독자의 생각'을 보면 글 초반에는 1~6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 '조선소'가 중요한 단서가 되어 연쇄적으로 여러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답은 글에서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정보 사이의 틈을 메워 줍니다. 그러면 글의 정보들은 강하게 연결되고, 서로 단결하여 글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독자는 글의 내용을 마음속에 '응집성있게'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과 같은 추가적인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독자가 1~6의 내용을 알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글 초반에서 '1. 정확히 모르겠지만 국가적 행사였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2. 모름', '3. 모름', '4. 모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독자는 글을 읽지만 자신의 기준에 비해 정보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스스로 1~6을 궁금해하며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기념식에 참석했다. 왜? 어떤 기념식이길래? 나와 있지 않으니, 여왕이 참석하는 국가적 기념식이겠지...여기가 조선소라면...배를 물에 빠뜨렸다면 기념식은 진수식이구나! 그래, 피나포레호의 진수식이었어. 그렇다면 진수식에 여왕이 참석한 피나포레호는 국가가 사용할 중요한 배인가 보다’

잠시 이러한 사고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고가 이론적으로 뭐라 하는 건지를 아는 것은 덜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래 설명은 TMI¹로 넘기고, 읽으며 생각하는 데 열중하셔도 됩니다.

능숙한 독자는 글을 읽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글을 읽는 자신의 마음을 보는 독서는 글이 아니라 ‘나’를 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의 작용을 읽기의 자기 점검(self-monitorin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점검(comprehension monitoring)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해의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켰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독자가 스스로 글의 표현(단어나 구,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했는지 점검하고, 문장과 단락을 읽은 후 마음에 남은 표상(representation)이 충분히 분명하거나, 짜임새가 잘 갖춰졌는지 등을 돌아봅니다. 이때 기준이 바로 응집성입니다. 마음속 표상 속에 여러 의미들이 응집성있게 잘 연결되었는지 판단을 하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여(자기조절 self-regulation) 이해를 높이는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도 점검 및 자기 조절 등은 본 책으로 이해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는 응집성에 대해서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집성이란?

응집성은 글을 읽은 독자의 마음에 남은 글 이해의 결과물입니다. 독자가 글을 읽고 마음에 구성한 의미 표상²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응집’은 국어사전을 보면 ‘한군데에 엉겨서 뭉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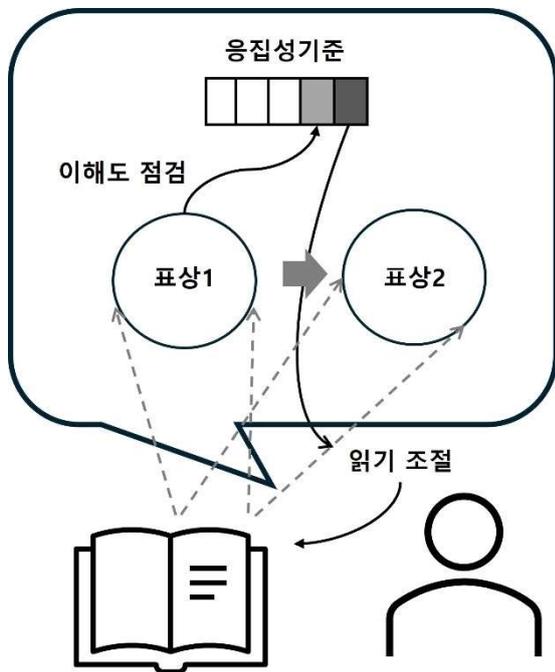
¹ Too Much Information 안궁금한데 쓸데없이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대부분 아는 표현이라 이렇게 각주를 다는 것 자체가 TMI입니다

² 말을 듣거나 글을 읽었을 때 의식에 떠오르는 개념 또는 개념들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것.

라고 뜻풀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핵심어로 뭉치는 게 아니라 명제³ 또는 구조가 있는 체계적인 하나로 뭉치는 것을 말합니다. 위 피나포레호 진수식을 둘러싼 이야기가 갖고 있는 내용요소(여왕방문, 파업, 씩씩한 분위기, 피나포레호, 환호)들이 서로 연결되어 결합된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응집성은 '파업 때문에 씩씩했다'처럼 인과관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집성 기준(standards of coherence)은 독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해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 내용을 잘 파악했다고 볼 수 있을텐데...라는 '어느정도 응집했는가'에 대한 모델입니다. 독자는 읽기 경험을 통해 나름의 응집성 기준을 갖게 되는데, 응집성 기준은 다양한 형태와 높고 낮은 수준의 범위를 갖습니다. 독자는 어떤 독서를 할 때든 최고수준의 이해에 도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글을 읽을 때 은연중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겠어, 이정도로 이해해야겠어'라고 응집의 형태와 정도를 결정합니다. 취미로 읽는 글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인 이해에 만족할 수 있지만, 더 잘 알고 싶거나 공부를 할 때는 최대한 깊이 이해하려고 응집성 목표를 높게 설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응집성이 높은 의미표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응집성있는 의미표상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배우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이해와 추론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집성있는 의미표상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독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림 설명>

글을 읽음으로써 표상1을 구성함. 응집성 기준에 비추어 보니 회색의 수준임. 독자는 더 높은 검은색 수준을 위하여 응집성이 더 높은 표상을 구성하도록 읽기를 조절함. 더 깊은 추론, 더 많은 추론,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함 등등 여러 읽기전략을 투입. 조절한 읽기에 의해 표상1을 수정하여 더 응집성 높은 표상2를 구성함

³ 철학에서는 참 또는 거짓을 알 수 있는 진술이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보다 조금 유연하게 씁니다.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에 속한다는 내용이거나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말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